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웨체스터교협 연합 부흥회
일시: 2017년 9월 29일(금)-10월 1일(주).
금, 토: 오후 8시; 주일: 오후 5시
장소: 한인동산장로교회(이 풍삼 목사)
강사: 김 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주제: 폭풍우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 성 창현 집사 새 주소:
23 Peck Road., Mt Kisco, NY 10549

2017년 9월 안내 :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황 용규 집사 / 시편 105:1-6, 37-45
 이번 주 친교: 이 영희 권사 / 신 미라 권사
 다음 주 친교: 김 경화 집사 / 서 현숙 권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예배순서

2017 년 9 월 17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315 장(통 512 장) "내 주 되신 주를"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114 편	홍 성훈 집사
찬양(Choir)	"주 님"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삿(Judg) 2:6-10, 16-23; 21:25	인도자
설교 (Sermon)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1)" - 왕이 없으므로 -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488 장(통 539 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2017. 9. 3. 주일 설교 요약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수 23:1-16)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율법서가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되는 첫 책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언약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세속국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언약백성이 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 지리적인 영토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과 직장,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포함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 땅은 1) 좋은 땅이고; 2) 모든 악을 쫓아낼 땅이며; 3) 담대히 차지할 땅입니다.

에덴동산을 “심히 좋게” 만드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좋고 아름다운 땅입니다(13, 16 절).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은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풍족하기만 한 애굽땅과는 달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입니다(신 11:9-12).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땅입니다. “좋은 땅”인 것은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기근이 오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풍족한 땅이었던 애굽은 노예의 땅, 헛된 땅이었습니다.

세상은 풍족해야 좋은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주리고 목마른 가운데서도 자기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영광받으신다고, 그런 삶의 터전이 “좋은” 삶이라고 하십니다. 더 풍족해 보이는 다른 삶을 훑쳐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 은혜의 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어야만 하는 땅이기에, 하나님의 땅이기에 모든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전쟁 이야기라기 보다는 하나님께 그 땅을, 나아가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이야기입니다. 건물과 재물, 인원까지도 다 드려야 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유익을 누려서는 안됐습니다. 많은 땅, 성공의 땅을 훑쳐보며 달라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나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땅을 누리는 첩경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할 수 있겠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은 만만치 않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친히 가셨습니다. 40 년간 고난과 은총을 통해 준비시키셨습니다.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좋은 땅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롬 12:1). 우리는 오직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직 우리의 삶에 많이 남아있는 죄악의 흔적과 습관을 제거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갑시다.